

Jaspers 의 實存哲學

奇 宗 錫

〈대학원 재학〉

目 次

머리말

本 論

一. 存在 解明

1. 包越者

2. 包越者の 樣態들

3. 理性和 實存

二. 眞理의 問題

三. 現實性

1. 實存的 現實에 超越하는 問題

2. 宗教의 現實

結 論

批判的 要約

머 리 말

〈實存〉의 問題가 한 時代의 特殊性의 所產物이거나 한 個人의 好奇心에서 일어나온 단순한 유희물이 되기에는 그것의 問題性이 너무나 깊은 곳에 根源하고 있는 오래된 哲學的 問題의 하나이다. 또 〈實存〉의 解明 내지 存在 探究의 諸樣態를 한 哲學的 流派의 이름밑에 두기에는 그 內容이 너무 多樣하며 심지어 그들 사이에는 단순한 理論差異 以上の 本質的 對立이 介在하고 있다.

위대한 理論도 그것이 單純히 피어났다가 時代에 따라 죽어가지 않고 그 生命力을 갖고 持續되고자 하는 限에서는 그것은 새롭게 展開되고 創造되기

마련이다. 또 理論은 單純히 人間存在에 局限되어 把握되어질 것이 아니라 存在 自體의 물음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하기가 人間存在의 解明은 存在 一般의 解明 내지 前提가 없이는 不可能할 것이다. 그러나 實存哲學이라는 구호 밑에 把握되는 思惟의 特徵은 비록 그 思惟者들의 否定에도 不拘하고 人間存在의 解明이 第一의 문제로 되고 있음도 숨길 수 없다. 그것은 現代的 狀況의 特殊性에 단 基因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存在論 一般의 理解가 人間의 不可避한 制約 아래 놓여있기 때문이다.

本小論은 Jaspers가 보여준 人間存在 解明과 그 展開를 살피려는 것이 目的이다.

Kierkegaard와 Nietzsche가 가졌던 當代에 對한 민감한 嗅覺과 신랄한 批判은 Jaspers에서 그대로 견지되어 그의 哲學의 背景을 이루고 있다. 그는 시대의 普遍的 虛偽와 欺瞞을 特征으로 하는 時代의 狀況意識을 배경으로 人間存在의 解明을 理論하였다.

과연 存在構造는 어떻게 파악되며 그 理論의 展開는 어떠한가 또 그것은 과연 일반적 形而上學과 어떤 연관아래 現實性을 얻는 것인가?

그러나 위와 같은 目標의 설정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밝혀 두어야 한다. 그것은 實存哲學 一般의 한 特質로서 파악되는 바 實存的 根本經驗의 「間接的 報告」¹⁾性에 유래한다. 卽 「非對象의 對象」으로서의 實存과 그 概念의 論述과는 必然的으로 거리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 哲學家의 實存이 전혀 폐쇄적이고 그것과의 교섭이 不可能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면, 우리가 實存을 論述하되 限界를 加해서 논술한다면 우리의 논의가 전혀 무의미한, 無生命的인 유희에 그칠 것도 아니리라. 그리고 本小論이 흘러졌던 자세를 가다듬어 哲學함의 한 계기가 되면, 本小論의 目的은 일단 달성된 것이라고 하겠다.

Jaspers의 著書 「實存哲學」의 전개순서대로 우리는 먼저 그의 存在論 一般을 살피보고 다음 眞理의 문제와 現實의 問題 順으로 高찰해 보겠다. Jasper^S의 存在論 高찰은 가장 中점적으로 보아져야 하겠고 이 存在論 問題의 해결

1) 曹 街京 : 「實存哲學」 p. 141 參照

이 나아가서는 眞理와 現實이라는 두 과제의 답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종합적인 要約에서 그의 形而上學 一般에 對한 批判과 그 理論의 問題性을 提示하고자 한다.

철학함 (Philosophieren)은 단순히 存在者에 對한 한갓된 지식을 의미하지 않고 形式論理學的인 理論의 전개에 의존하지도 않으며 그 모든 체계가 결국 「幾何學에 환원」²⁾ 되어 버릴 科學의 侍從도 아니라는 적극적인 주장이 生哲學과 實存哲學의 先驅라 불리는 Kierkegaard, Nietzsche등에 의해 끝없이 경고되며 등장하고 있다. 哲學과 科學의 문제가 항상 論議됨은 독특한 그들 사이의 관계에 유래됨이 本論에서 밝혀질 것이려니와, 科學的인 지식과 技術을 우리가 새로운 偶像으로 모셔 無反省的으로 盲從함은 人間存在의 狹小化의 운동이요, 「同質空間」³⁾의 휴식없는 운동의 연장일 뿐이다. 實存主義가 결코 科學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님은 分明하다. 特히 科學에 대해 批判과 意義를 함께 부여하고 있는 Jaspers에서는 위의 사실은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타락한 철학에 대한 失望에서 實存的인 科學으로, 科學으로부터 다시 本來的인 철학으로」⁴⁾ 귀환하는 동안 과학의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

과학의 한계와 그 意義를 솔직히 인정하고 Jaspers는 과학에 獨立하는 철학적 根源의 獨立性을 주장하게 된다.

哲學的 思惟方式은 앞 속에서 나를 상기시키고 나를 깨어있게 하고 나 자신으로 회귀케 하여 나를 變轉시킬 다른 思惟方式을 要求하고 있다. 哲學은 더 이상 科學과 소박하게 통일되어 있으면서 여전하게 誠實할 수는 없다.

現代에 철학한다는 일은 科學에만 의존하여서 발견될 수도 또 도달할

2) Bergson 用語 모든 학문은 기하학에 환원될 수 있다. L'evolution créatrice p. 208 以下 參照

3) Bergson의 用語 곧 無質空間을 의미한다.

4) Jaspers; Existenz philosophie (앞으로는 E. P. 로 略) 1964, S. 7 그는 과학의 한계를 (1) 과학적 사물인식은 存在인식이 아니며 (2) 과학적 인식은 삶에 대한 어떤 목적도 주지 못하며 (3) 과학은 그 자신의 本來的인 의미에 대한 어떠한 답도 줄 수 없다고 요약한다.

수도 없는 고유한 근원에서 생겨난다. 여기에서 Jaspers가 제시한 철학의 課題는 「現實은 근원에서 바라보며 그것을 내가 思惟하면서 나 자신과 교섭하는 그러한 방식에 의해 그 現實을 一內的 行爲에서— 파악」⁵⁾함이다.

이제까지 제시한 과학과 철학과의 연관성과 獨立性은 모두 앞으로 論究되어질 存在解明에 의해 그 윤곽이 뚜렷해 진다. 實存哲學이 단지 과학과의 문제만 관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實存哲學이 本質적으로 形而上學임」을 확인한 Jaspers가 해결하려는 形而上學的 問題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諸問題들이 앞으로 다루어질 存在論의 과제이다.

本

一. 存在 解明

1. 包越者

Jaspers의 形而上學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包越者 (das Umgreifende)의 概念이다. 이것은 存在의 非對象性을 이르는 말이다.

철학사유의 최초의, 또 항상 새로운 課題인 存在 自體의 탐구는 Jasper 자신이 소개한대로 Aristotle이 말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영구히 제시s 되면서도 항상 해결되지 않는 물음」⁶⁾이다. 이를 Jaspers는 包越者로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包越者란 存在의 직접적 파악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意味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요 그 파악 不可能한 存在의 성격에 대한 이름이라 생각된다.

그는 이 包越者의 概念定礎를 包越者의 경험에서 시도하고 있다. 비록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써 대상을 삼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存在의 한 樣態에 불과하며 存在의 한 規定을 벗어날 수는 없다. 우리는 제한된 地平위에서 대상을 규정하고 지식을 획득하며 살고있다. 그러나 지평선이 그 자리만 움

5) E. P., S1.

6) Aristotle; 「形而上學」 p.86. Jaspers; Vernunft und Existenz(앞으로는 V. u. E로略) S.35 에서 轉載

기면 달라지듯이, 또 地平의 無數함을 想定할 수 있듯이, 그것은 오직 存在 內의 한 地平에 불과하다. 우리는 한 地平에 유폐되어 그 속에서 思惟할 뿐 이다.

「우리는 存在의 完結된 전체를 概觀할 수 있을 법한 어떠한 위치도 얻지 못하며 그의 전체성을 통해서 存在 自體가 完結된 것으로서 간접적으로나마 알려질 수 있을 위치의 연관도 얻을 수 없다」⁷⁾

우리들에게 대상이 되는 어떠한 것도 그것이 비록 아주 거대하고 논리정연한 해석 밑에서 있다 해도, 그것은 한갓 우리들에 대한 他者일 뿐이며, 한 地平에서의 論理이며 存在全體가 아닌 對象化된 存在일 뿐이다. 그리고 획득된 地平을 다시 포일하는 끝없는 地平이 나타난다. 存在는 되풀이해서 새로운 것을 그때그때 規定된 存在로서 우리와 마주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반성하면서 우리는 부딪치는 모든 현상을 드러내면서 그러나 뒷걸음치기만 하는 것 처럼 보이는 存在 自體에 대해 물음을 제기한다」⁸⁾ 우리는 이 存在를 包越者라 命名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한갓된 地平이 아니라 모든 地平들이 비로소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Jaspers는 이 存在를 「언제나 자신을 알릴 뿐 결코 대상으로 되지 않는」⁹⁾ 것이라고 말한다.

Jaspers가 存在 自體를 이렇게 파악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存在의 內容은 全體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오직 그것은 包越者로서 表現되는 性格만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存在는 두개의 퍼스펙티브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우리가 그 속에서 또 그를 통해서 存在하는 全體인 存在로서, 또는 우리 자신이며 우리에게 각각의 規定的인 存在方式이 나오는 包越者로서」¹⁰⁾.

우리가 인식하고자 하는 存在의 어떠한 것도 그것이 認識이 되고자 하는 한에는 規定的 대상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包越者를 思惟하는 한, 우리는

7) V. u. E. S. 34.

8) E. P. S. 13.

9) Ibid. S. 14.

10) V. u. E. S. 35.

대상적인 것의 형식 속에서 非對象的인 어떤 것을 思惟하는 일을 하는 것이요, 「包越者에 관한 어떠한 命題도 그 自體속에 하나의 背理를 內包하고 있다」¹¹⁾. 在來의 論理學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는¹²⁾ 이 과업이 철학적으로 「모든 規定的인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存在意識의 明白化로써」¹²⁾ 수행이 가능하다. 이것을 Jaspers는 철학적 基本操作이라고 하였다. 이 기본 조작에 의해 人間은 사유하면서 가능한 것의 가장 광대한 영역을 알게 된다. 또한 이 철학적 조작은 우리의 存在意識을 변전시켜 어떠한 全體로서의 存在도 言語의 言表에서 對象的으로 파악하는 存在論으로 밝혀질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한다. 體系的인 存在論은 內在的 思惟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存在로 파악할 뿐이기 때문에 Jaspers에게서 배제되고, Jaspers는 「철학한다는 것은 초월하는 思惟에서 간접적으로 存在와 마주친다」¹³⁾고 한다. 存在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키어 나타난다는 것은 인식에 두가지 성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는 無制限한 진보요, 다른 하나는 包越者에 부딪쳐 넘어갈 수 없는 한계성이다. 그리하여 어떠한 人間學도 人間現存在를 고스란히 보일 수 없고, 어떠한 藝術理論도 예술의 本來的인 眞理를 파악할 수 없으며 어떠한 宗教學도 宗教를 現實的인 신앙으로 그려낼 수가 없다. 비록 「철학은 根源的으로 知識欲이며 특수한 것을 모두 알려는 길을 통하여 意識의 明瞭性을 찾는다」¹⁴⁾고 하면서도 소크라테스적인 無知를 내세우면서 「認識되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모든 科學內部에서 哲學이 해야될 의무이다」¹⁵⁾라고 한다. 왜냐하면 알려진 存在는 存在 自體가 아니기 때문이다.

11) E. P. S. 14.

12) E. P. S. 15.

13) E. P. S. 15 Jaspers는 存在論과 초월자의 조명의 의미를 범주를 질서있게 정리하는 板과 浮動하는 編物로 비유한다.

14) 曹街京 上揭書 p. 361

15) E. P. S. 21

2. 包越者의 諸樣態

하나의 存在, 包越者는 우리가 그것을 그의 內實에서 드러내려고 그에 관해 말함으로써 非對象的인 그의 性格은 對象性을 획득하게 되고 分裂되고 만다. 卽 規定된 현상의 對象性으로 말미암아 하나일 수밖에 없는 存在는 우리의 의식의 대상이 될 때 分裂되어 크게 세 가지 樣態를 띄운다. 그러나 「이 分裂은 한 原理로부터 강제적으로 끌어 내어진 것이 아니요, 여러 한계의 서로 만남을 의미한다」

분열된 세 存在樣態 卽 「世界的 現存在」 「實存世界」 「超越的 存在」를 각각 검토해 보겠다.

1) 첫째, 「첫째로 나는 現存在로서 存在한다」¹⁷⁾. 압도적으로 나를 規定하는 他者로서의 現存在는 世界요, 우리가 自身을 現存在的 樣態에서 연구할 때 이해할 수 있는 他者로서 나타나는 것이 自然이다. 그러나 可知的인 것으로서의 現存在는 특수화되어 包越的인 現存在가 아닌 오직 構成的일 뿐이다.

둘째, 「나는 意識一般으로서의 두번째 包越者이다」¹⁸⁾. 意識은 兩意的이다. 「우리는 그 자체로는 包越的이 아닌 살아있는 現存在로서의 意識 卽 오직 無數한 個別的 意識일 뿐만 아니라 또는 서로 다소 유사한 意識이며,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意識一般이 곧 그 兩義性이다」¹⁹⁾ 「그러나」 주관적인 意識의 여러 多樣성과, 그것만이 하나일 수 있는 참된 意識의 보편타당성 사이에는 하나의 비약이 있다.²⁰⁾ 그리고 一般意識은 〈無時間的〉이며 그런 의미에서 眞理는 無時間的이다.

셋째, 「精神은 우리들 자신인 包越者의 셋째 양태이다」²¹⁾ 存在의 근원으로부터 精神, 理解possible한 思惟, 行爲, 느낌의 全體이며 이 全體性은 「나의 知識에 대해 자체가 完結對象이 되지않고 언제나 理念으로 남아 있다」²²⁾ 「또

16) E. P. S. 17 17) V. u. E. S. 37

18) V. u. E. S. 38

19) V. u. E. S. 38 20) V. u. E. S. 38

21) V. u. E. S. 39 22) V. u. E. S. 39

精神은 無時間的인 意識一般의 抽象과는 달리 時間的인 生起이다」²³⁾ 時間的인 點에서 現在와 같으나 現存在가 科學的 탐구의 對象이 되는데 反하여 精神은 內面에서 理解可能한 것으로 항상 意識一般의 普遍者를 지향하고 그래서 否定과 肯定을 통한 自己把握이며 자신에 대한 노동이다. 우리는 이에 의해 세계와 우리 자신을 理解可能한 것으로 파악하여 全體性 속에 포함시킨다.

2) 「우리들 자신인 包越者를 그 全體로서 存在인지 아닌지 묻는 물음」²⁴⁾을 우리는 제기한다. 이는 오히려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파악될 수 없는 다른 것으로 他者의 存在를 지시한다. 우리들 자신인 包越者는 存在自體가 아니며 存在自體의 包越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假象은 아니다)우리들 자신인 包越者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 자체는 무엇에 依存하여 存在하는가 하는 물음이 일어난다. 「곧 存在는 超越者이니, 이는 어떠한 科學的 탐구에도 나타나지 않고 간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²⁵⁾ 超越者는 전적인 包越者이며 보여질 수 없고 알려지지도 않으면서 확실히 存在 (ist) 한다.

3) 지금까지 설명된 우리들 자신으로서의 包越者요 存在自體로서의 包越者를 보면, 各各의 現存在는 사라져 버리는 것 같으며 超越者는 未知의 世界와 같아서 「광대한 空間」으로 해방되어 버리는 듯하여 本來的 存在把握에 공허함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서 철학함의 중심점이 될 實存의 意識이 등장한다. 實存은 모든 광대한 空間의 몽롱해짐을 막는 「自己存在의 조건으로서의 根源 (Ursprung)의 意味에서 包越者이다.」²⁶⁾ 實存 自體는 對象이 되지 않으면서 包越者는 모든 樣態의 意味를 擔持한다.

實存이 언제나 다른 實存과 存在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새로운 좁힘 (Verengung)은 「사실은 歷史性으로서 存在의 깊이를 드러내는 유일한 可能性」²⁷⁾이며 뒤에 包越者의 모든 양태에 있어 자기 存在를 비로소 實存으로서 本來的으로 알게 될 수 있다. 개인은 우연적인 個體로 精神이 必然的인 보

23) V. u. E. S. 40

24) V. u. E. S. 41

25) V. u. E. S. 42

26) V. u. E. S. 42. 27) V. u. E. S. 42

편자의 통일인데 反해 實存은 他者로 지양될 수 없으며, 世界의 現存在 樣態에 對立하여 超越者와 직면한 本來越인 存在이다. 「實存은 오직 초월자에게만 남김없이 자신을 바친다.」²⁸⁾ 그래서 초월자를 超越者이게 하는 「實存이 없으면 超越者의 意味도 없어진다.」²⁹⁾ 타당한 보편자로부터 끌어 낼 수 없는 「결단의 可能性으로서의 實存은 시간에 있어서의 根源이며 歷史性으로서의 單獨者이다.」³⁰⁾

實存의 自己理解는 이해하는 자를 떠나 無時間性에서 방관적으로 理解하는 意識一般의 理解도 아니고, 精神의 全體에의 解消도 거부하여 자기 본래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卽 理解하는 者와 理解되는 存在의 一體化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包越者의 樣態를 검토했다. 他者로서의 存在는 경험적 現存在로서 보편타당한 科學的 탐구가 가능한 世界이거나 또는 存在自體인 超越者이다. 모든 超越的 樣態가 그에 의해 비로소 생명을 얻는 根源에서 우리는 實存을 言及하였으니 그것은 自己存在의 어두운 근거요 그로부터 내가 나 자신을 맞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만 超越的이 되는 은폐성이다.

여기에서 잠시 Jaspers의 包越者의 樣態 性格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存在는 하나일 수밖에 없으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存在樣態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分裂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包越者의 樣態들은 한계에 접하고 있으나 人間은 각 존재영역을 「超越의 方式으로만 획득할 수 있다. 개개의 양태들의 어느 경우도 非眞理와 現實喪失이 있기 때문에 包越者의 各 樣態를 얻기 위해서 하나의 결단의 문제가 생긴다. 그중 內在에서 超越者에로의 초월의 결단은 심각한 것이다. 여기에 自由의 문제가 등장한다. 이 자유는 오직 超越에 의하여 도달된 實存에서만 자라난다.

存在論적으로 存在가 설명될 때에는 存在는 分열된 형식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現存在 意識一般 精神의 世界存在에서 實存으로 그리고 超越 속에 자신을 바쳐 實存이 해소되는 超越者에로의 上昇은 하나의 分裂된 存在의 회귀요, 收斂이라 보아질 수 있다. 비유하여 말하면 前者는 下降運動이요,

28) V. u. E. S. 44 29) V. u. E. S. 43

30) V. u. E. S. 44

後者는 上昇하는 운동이다. 이러한 圖式에서 본다. Jaspers가 초기에 받아들인 Kierkegaard의 立場과도 유사할 것이나 判異한 차이는 Kierkegaard가 역설적 비약에서 곧장 신앙으로 뛰어들어간데 비해 Jaspers는 것처럼 일직선인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主宰的인 理性의 自由를 끝까지 견지하면서 신앙으로 뛰어들어 간다는 點이다. 實存은 非理性이요 理性은 非實存이라는 일반적 경향을 그는 물리치고 Jaspers는 理性과 實存의 독특한 관계를 定立시켜 주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Jaspers에 있어 理性의 문제와 그것의 實存과의 연관을 살펴보기로 하자.

3. 理性과 實存

Jaspers는 理性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완수하고 그것을 아는 것은 철학의 예나 또 영원한 본래적인 과제라고 한다.

그는 理性을 積통적인 「悟性」개념과 區別한다. 「實存에는 包越者의 모든 양태의 연관을 노리고 있는 他者가 不可分離하게 묶여져 있다.」³¹⁾ 理性은 實存에 묶여 있어 實存이 자기자신을 實現하고 스스로 開顯되어지는 實存의 眞理를 자기쪽에서 可能하게 한다. 理性自體는 제 힘으로 어떠한 것도 產出하지 못한다. 다만 자기를 업고 있는 實存으로 하여금 그 진리가 드러나게 깨어주고 격려하고 주선해준다. 그것은 그러므로 「부단한 요구요 운동이다.」³²⁾ 理性을 包越者의 모든 樣態의 유대라고 Jaspers는 말한다. Jaspers에 있어서 理性은 결코 고유한 根源은 아니지만 理性은 총괄적인 유대이기 때문에 모든 근원을 처음부터 들어나게 하는 根源처럼 보인다.」³³⁾ 理性은 어느 包越者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에게 자신을 관계시켜 끊임없는 流動化를 통하여 有限的이며 規定的인 것에로의 해방을 추구한다. 이성은 그러므로 끊임없이 他者에 前進하여 包越者의 편협성을 깨치고 一者에 통일시키려는 「통일예의 意志요」³⁴⁾ 은폐성의 實存을 〈交涉〉에 이르게 하는 「총체적인 交涉意志이다.」³⁵⁾

31) V. u. E. S. 44

32) V. u. E. S. 45 33) V. u. E. S. 46

34) E. P. S. 47 35) E. P. S. 49

存在인 「包越者의 모든 樣態에 있어 만나는 두 큰 極은 理性과 實存이다.」³⁶⁾ 理性과 實存은 서로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켜서는 안 되며 다만 그들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 「實存은 오직 理性을 통해서만 밝아지고 理性은 오직 實存을 통해서만 實質을 가진다.」³⁷⁾ Jaspers는 다시 이를 Kant的 語法을 모방하여 「直視없는 悟性概念이 공허하듯이 實存없는 理性은 空洞이며 理性없는 實存은 활동하지 못하고 잠을 자며 마치 없는 것과 같다.」³⁸⁾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처음 문제삼았던 理性과 實存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니 兩者는 對立的인 概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의존하여 각각 明瞭性과 現實性을 얻게되는 概念들이다. 고립된 理性, 고립된 實存은 비록 存在한다 하더라도, 고립된 理性은 一般意識의 數學的인 思惟운동이나 姿意的인 思惟에 빠져버리고, 고립된 實存은 감정, 체험, 본능 등에 의존되어 <盲目的인 강제성>에 빠져버려 벌써 그들 고유의 의미를 소실해 버리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Jaspers의 存在構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1. 存在의 完結한 全體를 우리는 把握할 수 없다.
2. 다만 모든 파악이 可能的인 地平을 包越하는 광대한 存在에 包越者라는 이름을 준다.
3. 우리에게 나타나는 分裂된 存在의 諸樣態를 우리는 「世界的 現存在」 「超越的 存在」 「實存世界」로 파악한다.
4. 包越者의 樣態는 아닐지라도 實在에 업혀 實在을 밝히는 諸樣態의 유대로서 理性이 있다.
5. 이들 각 存在領域은 超越的인 上昇에 있어 획득된다.

以上の 存在探究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哲學的인 成果를 찾아볼 수 있다. 超越者의 本來的인 意味는 固定化, 固立化, 絕對化에서는 결코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다.

<包越者의 自由로운 空間을 너에게 있어서 확보하라! 한갓된 意識的 存

36) V. u. E. S. 48 37) V. u. E. S. 48

38) V. u. E. S. 38

在속에서 너를 잃지 말아라!」³⁹⁾고 역설한다.

무한한 可能的 공간 속에 우리는 〈實存的〉으로 던져져 있다. 이 공간의 광막함에, 卽 無限者에 침몰할 것인가? 이 無에 직면하여 無限한 視力을 얻어 자신이 자신에게 증여될 것인가?

Jaspers의 存在論의 解明은 그의 眞理問題와 現實의 問題를 제기하고 解答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은 그의 眞理問題와 現實性을 살펴 보겠다.

二. 眞理의 問題

Jaspers에 있어서의 眞理의 一般概念은 서둘러서 결론부터 말하면 「眞理의 多樣性과 相對的 絕對性」⁴⁰⁾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보았던 그의 存在構造와 비교적인 입장에서 眞理問題를 考察하여 보고 眞理와 存在와의 問題에서 關係되는 交涉 (Kommunikation)의 문제를 살펴 보겠다. 前者가 眞理自體의 性格을 묻는 問題라면 後者는 그 傳達性을 묻는 물음이다.

Jaspers는 우선 「진리는 모든 樣態의 包越者로부터 자라난다」⁴¹⁾는 前提에서 출발하여 여러 眞理意味를 검토하고 있다. 現存在에서 成立하는 진리는 現存在의 保存과 넓힘의 기능이다. 現存在의 合目的性에 따라 파악되는 것이 현존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成立하는 眞理는 實用的 척도로써 判別되어 진다.

意識一般의 眞理는 강제적인 正當性에서 成立된다. 他者에 유래하지 않고 〈意識一般〉인 공간 속에서 無時間的으로 검증되고 명증되는 것이 眞理로서 파악된다. 科學的 眞理가 成立하는 場所이다.

全體性을 노리는 精神의 진리는 悟性的인 척도에서 보면 보편타당성을 잃지만 理念의 全體性에 부합하고 그리고 그에 의해서 그 全體性의 眞理에 對한 보증이 되는 限에서, 現存在와 思惟된 것에 依해서 확증된다.

「實存은 진리를 신앙에서 경험한다. 實用的 眞理의 어떠한 확증적인 現存

39 V. u. E. S. 54

40) 曹街京 : 上揭書 p. 269

41) E. P. S. 29

在的, 効果도, 悟性意識의 어떠한 證明可能한 확실성도, 精神의 그 어떠한 庇護的 全體性도 나를 맞아주지 않을 그때, 바로 그때 나는 모든 世界 內在을 突破함으로써 비로소 超越者의 경험으로부터 세계에로 돌아오는 眞理에 닿게 되니, 그때는 世界の 안과 밖에 同時에 내가 내 자신으로 存在하게 된다. 實存의 眞理는 本來的인 現實意識으로서 확증된다.」⁴²⁾

위에서 본 眞理의 樣態를 그 遂行者의 비교에서 보면 특징이 다시 照明되어 지는데, 現存在는 자기를 위하여 無限한 관심을 갖는 生命이, 一般意識에서는 單純한 思惟의 代表的인 點 (ein vertretbarer Punkt)이, 精神은 全體性이 發言하나 實存에서는 「자기가 자신이 그곳에 存在하는 人間이 發言한다.」⁴³⁾ 인간은 實存에 맡기고 이 代理不可能한 것이, 다른 代理不可能한 것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包越者의 그 어느 양태에서도 眞理가 하나의 非眞理에 對立하고 各 樣態에서 그 特有한 不滿이 자라게 되며, 이때문에 다른 보다 더 眞理에로 돌진한다. 現存在는 삶의 환희와 喪失의 고통속에 不滿이 자란다. 意識一般에는 자기地平에서의 正當性的 恍惚과 非正當性的 拒否가 있으나, 이것들에 對立해서 非本質的인 것에서 오는 荒野가 있다. 精神은 全體者안에서의 만족과 언제나 未完成이라는 번민을 지니되, 이것들에 對立해서 불만이 자란다. 實存에는 信仰과 絶望이 있으나, 이것들에 대립해서 영원한 安息을 求하게 된다. 이러한 不安에서 한 眞理에서 다른 眞理에로의 돌파가 成立되며 하나인 眞理에 대한 물음이 提起된다.

하나인 眞理 (die ein Wahrheit)는 이런 여러 양태의 충돌을 막아 그것들이 모두 상실하지 않고 顯現하는 統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알려진 全體者 속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不斷히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 現實의 根本狀況 이다.」⁴⁴⁾

時間的 現存在에 있어서는 우리가 갖는 이러한 根本狀況은 絶對化, 固定

42) E. P. S. 32

43) E. P. S. 33

44) E. P. S. 36

化에 대항하여 根源으로 돌아가서 本來的 이려는 例外와 所見들과 다양성에 맞선 歴史的 형태로서의 包越的 眞理인 바 權威가 要求된다고 Jaspers는 보고 있다. 예외와 權威는 끝없는 진리에의 돌파를 이르는 말이다. 그것은 하나인 眞理, 하나의 人間이란 成立할 수 없음을 前提한 것이려니와, 例外는 「包越하는 모든 양태를 꿰뚫어 잡고 있는 眞實性的 根源이며 規定성을 단적으로 없애 버리는」⁴⁵⁾ 것으로서 姿意的이거나 脫落이 아니라 包越者의 眞理를 담아서 一般概念을 깨려하고 있으며, 權威는 부단한 긴장 속에서 긴장을 통한 운동으로 나를 지탱해 주고 庇護하고 인도해 준다. 우리를 경이케 하는 예외와 우리를 安定시키는 권위는 서로 극단적인 對立概念이나, 「眞理에의 지침으로서 根本에서는 함께 짝지어 있다」⁴⁶⁾ 양자는 모두 超越者에 定礎되어 있고 未完成이며 歴史的이라는 點에서, 또 對象的인 形態化를 거부하는 點에서 共通的이다.

이 例外와 權威에 대해서도 언제나 멈추지 않고 哲學的 思惟는 진행하며 오히려 그 양자 속에 파고들어 思惟하는 것이 理性이다. Jaspers의 理性概念은 이미 본 바 있으나 지금은 Jaspers哲學의 특징인 交渉의 문제와 연결시켜 진리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진리의 다양한 의미는 진리의 交渉에서 그대로 나타나므로, 그는 전달이 없는 각 양태의 참된 眞理는 成立할 수 없다고 한다. 現存在에서의 交渉을 Jaspers는 Kant의 術語를 빌어 〈非社交的 社交性〉⁴⁷⁾이라고 특징지운다. 意識一般은 同一한 點的인 意識의 交渉이며 神의 交渉은 全體性에서의 自己形成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세 양식은 각기 진리가 불만을 지니듯 그 交渉도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現存在的인 交渉만을 따르면 意識一般의 眞理와 精神의 全體性的 理念은 破棄되어지고 意識一般의 思惟는 無時間的 思惟를 絶對化하여 存在의 眞理를 드러내지 못하며, 精神의 絶對化는 理解될 뿐인 〈공허한 교양의 세계〉만이 주어진다. 각 양태를 孤立하는데서 생기는

45) E. P. S. 38

46) E. P. S. 45

47) V. u. E. S. 60

위의 불만은 곧 어떠한 양태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요구는 어느 것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그들 세 양태의 <위계질서>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계질서의 파악이 결코 그 자체로 통일될 수 없고, 包越者의 생각은 새로운 전달의 意志를 강요한다. 여기에서 實存과 理性의 보편적이 交渉이 成立한다. 實存의 交渉은 代理될 수 없는 個別者사이에서의 交渉이다. 그것은 또한 同一한 水平에서의 權力意志가 따르지 않는 實存의 內實을 위한 <사랑하면서의 투쟁 (liebender Kampf)>⁴⁸⁾이며 存在의 分裂性を 간과하지 않으면서 超越者를 위해 開放되는 交渉이다.

그러나 비록 理性이 思惟하며 實存的 交渉에서 침투하여 實存的 전달을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實存과 他人의 實存의 歷史성에 얽매인 까닭에 결코 完成되는 法이 없다. 그리하여 Jaspers는 眞理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진리가 이러한 途上에 있다면 그것은 超越者 안에서만 存在할 수 있으며 超越者는 단순한 第二의 世界로서의 저세상이 아니며 또한 더 나은 世界로서의 세계도 아니다.」⁴⁹⁾ Jaspers는 여기에서 眞理가 途上에 있다고 하여 無制限 交渉의 意志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지식의 획득에 멈추어 버리는 不誠實을 고정화된 지식(폐쇄된 存在의 지식)으로 주장할 때 생기는 不誠實과 함께 경계하고 있다.

그리하여 Jaspers는 그의 存在解明에서 보인 超越的 性格을 眞理의 문제에서도 그대로 보여 交渉의 未完成과 그 좌절을 오직 초월자에게서만 완수될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Jaspers는 결국 「思惟와 交渉의 궁극은 침묵이다.」⁵⁰⁾라고 말하게 까지 된다.

三. 現 實 性

현실, 그것에 대한 물음은 철학의 마지막 물음이다. 現實을 認識面에서 보아 모든 것을 因子化시켜 數學的 처리를 하는 것은 「사실적 個別者의 끝

48) V. u. U. S. 69

49) V. u. E. S. 75

50) V. u. E. S. 82

없음과, 모든 사태의 무한한 解義可能性과 轉義可能性⁵¹⁾ 때문에 誤謬를 犯하고 만다. 우리가 行爲에서 現實的인 것을 찾는 것도 절대적 종말을 감출 길없다. 여기에서 Jaspers의 현실에로 超越하는 철학을 논구한다.

1. 現實에로 超越하는 問題

「本來的 現實은 可能性이라고 思惟될 수 없는 存在다」⁵²⁾ 운동과정에서 보면 현실은 可能的 공간일 것이나 현실 자체가 있는 곳은 可能性은 없어지고 必然性이 남는다. 그러나 Jaspers는 그것을 有限的 지식에 흐르지 않을 철학적 사상이 가능적이라는 범주를 가지고, 현실로 超越한다면, 여기에는 自由와 희망이 전개되는 공간이 열린다고 한다. Jaspers는 또한 현실성을 느끼는 두번째 예로 역사성을 들어「현실은 우리에게 역사성으로 나타난다」⁵³⁾고 한다. Jaspers는 인간은 우주에서 티끌같으며 人間歷史가 어떠한 고정화된 完成도 갖지 못하며 全體性에 同一化할 수 없다고 하여 人間은「오직 歷史的으로만 현실적」⁵⁴⁾이라고 한다. 現實을 歷史性으로 파악하는 것은「내가 그 속에 서있는 時間上 具體的으로 나타나는 현실성과 同一化됨으로써 根源에로 파고 들어감을 意味한다.」⁵⁵⁾

이렇게 파악한 歷史性에서 나는 超越者와 만나며 이 超越者에 의해 人間은 歷史的 實體가 된다고 한다.

分裂된 存在는 分裂된 存在 안에서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요구가 있다. Jaspers는「本來的 現實은 그것이 하나의 현실일 때만 우리에게 存在한다」⁵⁶⁾고 한다. 統一이란 實在에 있어서는 직접으로는 意識一般이나 理念에서 파악되어질 수 없고「통일이 있다면 다만 超越者에게만 있다」⁵⁷⁾고 한다.

이상에서 Jaspers에서 보는 현실에의 超越이라는 문제에 모두 超越者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본다. 이것은 그의 存在解明에서의 예비된 결론인데 이는 有限的인 人間存在의 超越에로의 자기 운동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여

51) E. P. S. 57

52) E. P. S. 59

53) E. P. S. 62 54) E. P. S. 63

55) E. P. S. 64

56) E. P. S. 64 57) E. P. S. 66

기에서 우리는 철학적 결단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自己봉쇄적 內在나 아니면 超越者로의 돌파나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Jaspers는 일체의 현존재가 좌절할 때 存在意識에 飛躍이 있고, 초월자가 비로소 현실임을 알게 된다고 한다. 그는 自明的으로 「초월자는 철학에 대해서 비록 숨어있긴 하지만 현실로 나타남」⁵⁸⁾을 받아 드린다. 이러한 초월자가 나를 世界 外의 生과 世界內의 生을 결단토록하여 「철학적 신앙은 有限性을 알고 있기에 歷史性을 유일한 實現方式으로 要求한다.」⁵⁹⁾

그러나 Jaspers는 이러한 철학적 결단이 現實에의 접근에 이르는 方式을 가르쳐 주기는 하나 그렇다고 수행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철학이 思想으로 言表된 이 超越的 存在는 「항상 나타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普遍的으로 顯되고 있지 않다.」⁶⁰⁾ 여기에서 Jaspers는 철학적인 限界를 設定하고 宗教的인 發言을 시작한다.

2. 宗教의 現實

宗教에서는 哲學함에서 파악된 것과는 전혀 相異한 形態로 現實이 나타난다. 現實은 이미 말을 해버렸고, 그 현실이 神話에서 또 啓示에서 把握된다. 宗教를 Jaspers는 獨占的인 啓示, 獨占的인 歷史性, 獨占的이며 內在化된 統一로서 哲學的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현실이 비록 可能性이 없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存在한다면 言語로써 말을 걸어 와야 한다. 이 현실의 言語形式으로서 Jaspers는 例를 들어 神話와 童話라고 한다. 그러나 哲學的 思惟의 言語로써는 이 현실이 담겨질 수 없고 따라서 存在를 들을수 없다. 그러므로 「存在를 암호(Chiffre)로 들었을 때 비로소 의심할 수 없는 현실이 들린다.」⁶¹⁾ 철학에서 보던 암호인 이 초월적 현실의 언어는 宗教에서는 神話와 啓示 속에 나타난다. 그리고 이 암호가 완결된 것으로 化할 때 하나의 경험적 사실이 되고 있다.

58) E. P. S. 70

59) E. P. S. 71

60) E. P. S. 72

61) E. P. S. 74

다음 哲學에게는 초월자가 歷史性으로 밖에 顯現하지 않음은 이미 본 바와 같으나 「宗教의 啓示信仰에서는 超越者가 史實的 (historischen)인 一面性 속에 종결되어져 있다.」⁶²⁾ 이것은 넓은 공간 속에서 자기를 實現하는 理性的 實存에서 모든 交涉을 차단하여 充實 속으로 들어가는 實存 卽 理性이 포기된 實存이다.

「宗教에서의 統一은 可視的이며 客觀的인 統一로 된다.」⁶³⁾ 統一은 肉化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宗教가 철학에서 수행함이 없는 것을 수행한다고 해서 哲學이 宗教의 下部構造라고 여겨서는 안된다. Jaspers는 哲學의 하나의 極이 宗教에로 흡수되어야 하며 이 極없이는 宗教도 沈沒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結 論

批判的 要約

이제까지 보아온 Jaspers의 철학을 批判的 觀點에서 要約해 보자.

Jaspers에 있어 存在는 分裂되어 나타났다. 分裂은 하나의 存在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存在 그 自體는 分裂된 그 어느 存在樣態로써 파악함이 不可能하다.

우선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卽 그러한 전제의 전적인 거부가 그것이다. Jaspers는 이에 대해 답할수 있다. 그것은 內在者에의 머무름이라고. 비록 內在者에 머무름이라고 해도, 그것 뿐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묻는 어떠한 반격도 Jaspers가 거부한 論理 위에서 묻는 것이다. 단적으로 Jaspers의 이 前提는 그가 말하는 〈철학적 결단〉의 문제이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形而上學的 要請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몇 가지 문제가 남는다. 비록 Jaspers가 현존재를 對象化하여 科學的인 여러 學問의 成立이 있음을 보였으나, 이때

62) E. P. S. 76

63) E. P. S. 77

科學的인 學問 以前의 現存在(自然)⁶⁴⁾는 實在的인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여러 學問可能의 근거가 意識一般에서 주어지긴 한다. 그러나 대상쪽에 이미 Bergson과 같이 自然 內에 비록 영켜져 있는대로나마 法則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Bergson이 批判한 主觀主義에서 벗어날 수 없고, 實證的 立場을 견지하기는 어렵게 된다. Jaspers가 비록 科學의 意義를 적극적으로 밝혔다고는 하지만, 위의 입장에 서서 批判한다면 科學的 客觀性이 다시 문제로 등장한다.

우리는 그의 眞理一般의 概念의 性格을 「眞理의 多義性和 絶對的 相對論」이라 規定했다. 그리고 多義性은 超越者에서 解消된다. 그러나 그 多義性이 어떻게 超越者에서 解消되나? 그때 그는 윗 단계는 아래 단계를 前提하고 이것을 돌파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또 각 단계의 돌파는 〈單純한 選擇〉이 아니라고 했을 때 아래 단계의 眞理와 윗 단계의 眞理의 對立의 解消는 어떻게 可能할 것인가?

다음 여러 存在樣態(包超者의 樣態)即 存在 領域에의 길은 深淵을 드러내어 〈超越〉의 形式을 통해서만 接近할 수 있음을 보이고 이 〈超越〉하는 철학이 그의 哲學의 중요한 特性이다. 그러나 〈現存在의 世界〉의 多樣性이 어떻게 一者로 모여질 수 있는가 하는 問題는 그대로 남는다.

다음 眞理는 傳達可能性으로서 있으며 그 理性的 實存에서 完遂된다고 했다. 그러나 초월에서 完遂될 때 서로를 상실시키지 않는 開放性의 交渉意志가 그저 各人의 實存을 超越者에서 解消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歷史的 實存들의 충돌은 어떻게 解決되겠는가?

최후의 眞理확증자가 對象化되지 못하는 그 기준은 어떻게 求하여질 것인가? 그것이 〈虛無主義〉에의 추락이 아니라면 끝없는 理性 追求의 安息은 어디인가? 그것은 하나의 영원한 放浪者인가?

비록 초월자에서 解消된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각 眞理양태의 한계만을 짐작하는데 그쳐버릴 것인가?

다음으로 그는 超越的 存在의 普遍的 開顯은 宗教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64) 現存在와 自然과의 관계는 本小稿 p. 16 參照

勿論 그것은 단순한 宗教에의 歸依가 아니고 哲學의 한 極으로서의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의 固定化가 아닌가?

또한 「감관세계의 명확한 研究는 宗教를 미신적인 固定化와 混同함을 없앤다」⁶⁵⁾고 했지만 감관세계의 연구가 이미 한 地平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의 研究로서 확증할 수 있는가?

結論的으로 그는 存在는 암호로써 들을 때 비로소 의심할 바 없는 現實이 청취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各 實存의 암호해석이 同一할 수 없을 때 그렇게 그가 강조했던 實存의 交渉意志도 결국 無爲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以上으로 그의 思想을 批判的으로 要約해 보았다. 그러나 나는 많은 問題點을 가지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에 對해 많은 共感을 禁할 수 없다. 그것은 그의 철학이 보여준 廣大한 視野와 誠實性에 대해서다. 한 人間存在가 絶對化되어 나타날 수 없다. 마치 여러 樣態의 眞理中 어느 하나가 絶對化될 수 없듯이. 그리고 不斷한 眞理에의 誠實性은 우리를 항상 開放하고 솔직하게 存在에로 나아가게 한다. 이것은 哲學함에서 언제나 견지되어야 할 자세이다. 여기에서 비로소 철학함이 시작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Karl Jaspers. Existenzphilosophie, 3版 Berlin 1964
2. Karl Jaspers. Vernunft und Existenz, Bremen 1949
3. M. Heidegger. Einführung in die Metaphysik, Tübingen 1953
4. H. Bergson. Lévolution Créatrice, Paris 1948
5. 曹 街京 : 「實存哲學」 서울 1970

65) E. P. S. 75